

식민지 조선의 ‘독신’ 범주 구성과 모순적 작동

-결혼실패자와 독신주의자 사이-

정 지 영*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독신’ 범주의 구성
- III. 불행한 독신자, 노처녀·노총각의 문제
- IV. 독신주의자의 등장과 독신 아파트: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선망
- V. 나가며

국문초록 |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조선에는 ‘법률혼인주의’가 선언되고 근대적 ‘법률혼’이 제도화되었다. 이로부터 법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부부 중심의 결혼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연애에 기반한 결혼으로 성립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소가정’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담론들이 구성되고 있었다. 그 ‘스위트홈’의 이상과 대비되어, ‘독신’인 상태는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소가정은 식민지 조선에서 ‘종법적 호주제’ 체계 속에 배치된 모순적 제도였다. 또 경제적 자립 기반이 부실한 식민지의 현실에서 근대적 ‘스위트홈’을 이루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웠다. 이렇듯 연애도, 결혼도 어려운 상황에서 ‘독신’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했다. 이 연구는 식민지기의 신문과 잡지 기사 등의 자료에서 ‘독신’,

* 鄭智泳,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투고일 : 2018. 11. 15. 심사완료일 : 2018. 12. 4. 게재확정일 : 2018. 12. 20.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193>

‘독신자’ 그리고 ‘노처녀’, ‘노총각’ 등이 관련된 사건들이 보도된 양상에 주목하여 ‘독신’을 둘러싼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읽어본 것이다. 부부관계 밖의 독신자들은 짧은 수명, 잦은 질병, 우울함과 자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가시화되고, 이들은 ‘부부자’의 타자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독신생활과 독신주의에 대한 선망도 피어나고 있었다. 식민지의 ‘독신’이라는 범주는 결혼관계의 타자로 설정된 것이지만, ‘중법적 소가족 부부’라는 모순적 관계에 포섭되지 않고 그 혼인 체계에 틈을 내는 새로운 선택지이기도 했다.

핵심어 | 독신 담론, 노처녀, 노총각, 연애, 결혼, 부부, 소가정, 아파트

I. 들어가며

현진건의 단편소설 “B사감과 러브레터”(1925년)의 주인공 B사감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C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여사라면 딱장대(성질이 온순한 맛이 없이 딱딱한 사람)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꾼(기독교신자)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 없는 추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그려지며, 그 성격은 “뽀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찔찔한 눈이 노릴 대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몹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고 묘사된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오는 러브레터를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선망을 가진 고독하게 늙어가는 처녀다. ‘독신주의자’라는 말이 20세기 초 소설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의 수식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독신’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20세기 근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¹⁾ 이 글은 독신으로 사는 삶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이

1) 독신의 역사와 관련된 저서로는 『독신의 탄생』(엘리자베스 에보트, 이희재 역, 해냄, 2006)이 있다. 한편, 『독신의 수난사』에서는 ‘독신’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 16세기에 등장했고, ‘독신자’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장 클로드 블로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독신'에 대한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다.²⁾ 독신이라는 말 속에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둘러싼 담론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면서 근대 사회의 골칫거리이자 새로운 상징으로 설정되는 등 그들에 대한 세밀한 기술적 창조가 이루어졌다. '독신'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의 사회생활, 일상적 관계, 자아의 형성과 관련한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가 된다. 곧 인간관계, 통치의 양식,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담론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³⁾

'독신'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결혼'이 설정된 방식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앞선 연구들에서 식민지/근대 시기 연애에 기반 한 부부 중심의 소가정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연애에 기반을 둔 애정적 부부관계, 양처(良妻)와 주부, 소가족 형태의 살림 등을 구성 요소로 한 새로운 가정의 이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기의 근대적 순결 이데올로기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처녀'의 사회적 처지가 연계되는

권지현 역, 『독신의 수난사』, 이마고, 2006. 17쪽.

2)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1994, 321쪽.

3) 담론 분석 방식을 singlehood의 문제와 연결한 논의로는 Kinneret Lahad, "Singlehood, Waiting, and the Sociology of Time," *Sociological Forum*, Vol. 27, No. 1, 2012, pp.164-166 참조.

4) 식민지기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 및 신여성의 등장과 그들을 둘러싼 담론, 법적인 변화 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참조.

5) 결혼에 기반 한 일부일처제 소가정이 만들어진 과정이 논의되면서 식민지기 조선에서 첩이 문제가 된 상황들(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한국여성학』 22(4), 2006, 47~84쪽), 이혼의 문제(소현숙, 『이혼 법정에서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 역사비평사, 2017) 등 '결혼'과 '가족'의 관계가 설정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벌어진 각축이 논의되었다.

상황이 분석되었다.⁶⁾ 처녀의 아름다움은 자유연애와 일부일처제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포섭되어야만 가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일제 말기 국민 연극이 결혼의 실패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처녀’ 또는 ‘결혼의 실패’ 등에 주목하면서 ‘독신’과 관련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지만, ‘독신자’, ‘독신주의’, ‘독신생활’ 등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독신’ 범주의 구성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⁷⁾

이 연구에서는 독신 및 독신자가 어떠한 담론 안에서 배치되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식민지기 1900년~1945년까지 이루어진 ‘독신’ 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검색의 키워드로 독신(독신자), 노처녀, 노총각 등을 넣어서 자료들을 추출한 뒤 그 기사들에서 그들을 논의한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사회에서 ‘연애결혼’을 통한 부부가정이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타자로 설정된 ‘독신자’들을 둘러싼 담론의 다층적 결을 읽어보고자 한다.

II. ‘독신’ 범주의 구성

1. ‘독신’이라는 새로운 용어

20세기 초 조선에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독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6) 이주라, 「한국 근대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처녀라는 주체」, 『어문논집』 79, 2017, 78~80쪽.
7) 그밖에 1950년대 여원 잡지 속의 독신 관련 담론들이 분석되기도 하고, 중국 사회의 독신여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선미, 「『여원』의 비군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2008, 51~81쪽; 김미란, 「5.4 개성해방 시기의 ‘독신’ 담론」, 『중국소설논총』 45, 2015, 141~166쪽; 천성림, 「모성의 거부: 20세기 초 중국의 “독신여성” 문제」, 『중국현대사연구』 24, 2004, 47~68쪽.

1903년 4월 17일 『황성신문』의 「독신자의 과세」라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⁸⁾ 한편, 1909년에 「독신해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독신 해방의 의미는 농장주에게 속박되어 있던 사람이 처를 두고 혼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다. 곧 독신은 ‘혼자’라는 의미였다.

독신을 혼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용례와 같다. 조선시대 ‘독신’이라는 말은 “저는 독신으로서, 형제가 없습니다” 또는 “가구가 없어서 독신으로 유배하게 했다”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독신은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혼자서’라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⁹⁾ 조선시대에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은 없었고, “독녀(獨女)/독남(獨男)”이라는 말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혼인 경력과 무관하게, 늙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¹⁰⁾ 늙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의 그들을 묶어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구휼과 보호에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1903년 이후 1945년까지 신문 기사의 제목에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독신’이 사용된 경우를 검색하면 165건이 나온다.¹¹⁾ 『황성신문』, 『매일신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신문』, 『시대일보』, 『중외일보』,

8) 천성림의 논의에 따르면, 중국에서 ‘독신’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Celibacy를 번역한 것으로 1919년을 전후하여 빈번히 등장했다고 한다. 천성림, 「모성의 거부: 20세기 초 중국의 “독신여성” 문제」, 『중국현대사연구』 24, 2004, 50쪽.

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653책, 영조 4년 1월 2일 계축 “司書 尹尙白이 상소를 올리기를, 저는 獨身으로 형제가 없습니다”; 『승정원일기』 53책, 인조 14년 8월 1일 임신 “李得命은 家口가 없으므로 獨身으로 유배하도록 하겠다는 戶曹의 계”

10) 이러한 표현은 조선시대의 『호적대장』,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녀/독남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는 정지영, 「조선시대 ‘독녀(獨女)’의 범주- ‘온전치 못한’ 여자의 위치」, 『한국여성학』 30(3), 2016, 1~26쪽 참조.

11) 이 자료는 2016~2017년 사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전산화 자료를 통한 검색 결과이다. 현재 『황성신문』, 『매일신보』 등 상당수의 신문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남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매일신문』, 『만주일보』, 『국민신보』, 『국민보』 등의 신문¹²⁾에서 독신과 관련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독신 관련 기사가 많이 실린 신문은 『매일신보』 66건, 『동아일보』 45건, 『부산일보』 18건, 『조선중앙일보』 12건 등이다. ‘독신’과 ‘독신생활’의 논의를 주도한 것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점은 당시에 독신생활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 국가적 차원의 기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1900~1940년대 ‘독신’ 관련 기사 수

연대	1900	1910	1920	1930	1940	합계
기사 수	3	6	45	93	18	165

독신 관련 기사는 192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30년대에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기사가 작성된 연도는 1932년에서 1936년, 1939년에서 1940년 사이로 연도별로 10개 이상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혼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독신은 1910년대를 거쳐 1920년대에 이르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독신세’에 대한 내용이 28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의 독신세에 대한 기사가 17건, 국내의 독신세 발의 및 입안과 관련한 논의가 11건이다. 그밖에 해외의 유명한 독신자들의 사례 또는 기이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 19건으로 많다. 다음으로는 독신자의 자살 및 자살 시도, 피살 또는 강도피해 등 죽음에 대한 것이 18건 정도이다. 1920년대 이후 독신생활에 대한 기사가 15건으로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며, 1930년대 이후로는 독신자들의 합숙소 등에 대한 내용이 16건으로 많이 보인다. 독신자가 저지른 범죄와 방화 등 악행에 대한 기사가 17건인데, 그러한 기사 역시

12) ‘독신’관련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한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한다.

1900년에서 1919년까지 '독신'에 대한 기사는 해외의 독신세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미공화국 아이연정[아르헨티나]에서 남자가 20세에 달하면 결혼하기로 정한 까닭에 만약 만 20세가 지나도 결혼하지 못한 자는 38세까지 매월 5불 세금을 정부에 내고 그 후 5개년간은 배로 내고, 50세가 지나면 20불, 75세가 지나면 30불, 75세 이상은 1년에 10불을 감하고, 80세 이상은 세금이 없다더라”는 것이다.¹³⁾ 이러한 독신세는 “독신무자세(獨身無子稅)”¹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동 1명에 상금 8백 원을 주며 독신자는 중세 물고 공민권 피탈”¹⁵⁾하자는 논의, “인구 격감을 방지키 위해 25세 이상 남자 전부에 대해 독신세 건을 국회에 제출”¹⁶⁾한다는 논의,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는 훈장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¹⁷⁾는 등의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독신세는 출산하여 인구를 증식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한편, 독신의 범주에 누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혼인 경력의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 연구에서 독신이라고 하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과부/환부, 이혼, 미혼부 모 등은 '독신'이라는 일반적인 우산 아래 묶인다고 여겨질 수 있다.¹⁸⁾ 하지만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독신'은 과부나 이혼자와 구별되는 것, 곧 배우자를 가진 적이 없는 존재를 묶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1926년 『별건곤』에는 「부부자와 독신자 사망 수, 북구서전[스웨덴] 나라의 흥미 잇는 조사, 각

13) 『獨身者의 課稅』, 『황성신문』, 1903. 4. 17; 『南美의 독신세』, 『황성신문』, 1906. 12. 13.

14) 『獨身無子稅』, 『매일신보』, 1920. 4. 12.

15) 『매일신보』, 1916. 4. 20.

16) 『동아일보』, 1921. 3. 31.

17) 『매일신보』, 1925. 1. 14.

18) 이에 대해 개념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신'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각 사회의 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천인의 사망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¹⁹⁾

<표 2> 『별건곤』의 해외 부부자와 독신자 사망수 기사 보도와 구분 방식

연령계급	독신자	결혼자	이혼자/환과자(鰥寡者)
30세	남 9.2인, 여 6.4인	남 4.9인, 여 6.3인	남 8.9인, 여 10.2인
40세	남 14.7인, 여 8.1인	남 7.4인, 여 7.9인	남 12.9인, 여 9.5인
50세	남 22.7인, 여 12.2인	남 11.7인, 여 9.0인	남 17.3인, 여 11.9인
60세	남 37.2인, 여 23.2인	남 22.1인, 여 17.2인	남 29.5인, 여 21.2인

위의 표는 수치 자체보다는 기사에서 구분한 항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우선 이 기사는 독신자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보다 ‘결혼자’의 사망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범주화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독신자, 결혼자, 이혼자 및 환과자라는 세 개의 범주를 설정하여 보도하는 것에서 20세기 초에 ‘독신’의 범주가 결혼 경력에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과정이었음을 볼 수 있다. ‘독신’이라는 말을 통해, 결혼 경력 여부를 기준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자들을 묶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2. 결혼구락부와 독신구락부의 대립

‘독신’은 ‘미혼’과 구별되어 사용되었다.²⁰⁾ 다음 글은 ‘미혼남녀’와 ‘독신’

19) 『夫婦者와 獨身者 死亡數, 北歐瑞典 나라의 興味 있는 調査, 각 千人의 死亡數, 『별건곤』 제2호, 1926. 1. 1.

20) 이 시기 신문을 대상으로 ‘미혼’을 검색하면, 100여 개가 넘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 기사들의 제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千萬의 未婚 處女, 남자가 부족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영국의 처녀문제가 야단들, 大戰亂이 生한 社會現象』, 『매일신보』, 1922. 2.

을 구별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에 나는 한갓 꿈같은이나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가정을 그려보려고 한다. 따라서 나와 같이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미혼남녀에게 참고로써 주고자 한다. 독신 생활을 주창하는 이는 보지 않아도 좋다. 다시 말하면, 가정부인론자(家庭否認論者)는 보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 가정시론자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만약 가정을 이룬다 하면 이렇게 하면 하는 생각뿐이다.²¹⁾

곧 미혼은 단순하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미혼남녀는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자들이다. 하지만, '독신'은 독신 생활을 주창하는 이들이며, 가정을 부인하는 입장을 가진 자이다. 미혼이 결혼 체계 안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독신은 가정을 '부인'하고 독신생활을 주창하며 결혼 밖의 위치에 있기를 선택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비되고 있다.

1933년 『별건곤』에 실린 「독신구락부와 결혼구락부의 반목」이라는 글은 영국에 독신구락부(독신클럽)가 부활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독신구락부가 결혼구락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국 「스탬포드」시(市)의 남쪽 45마일 「뉴-카슬. 안더. 라임」에 최근 독신구락부가 부활되었다. 이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창립되어 일시 중지되었던 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시 머리를 들게 된 것이다. 남녀 회원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어 상당히 흥왕하는 중인데 최근 그 동리에 「결혼구락부」

26; 「2백만의 未婚處女, 남편을 많이 수입하여서 나라의 인구를 늘리자고, 『매일신보』, 1921. 2. 24; 「兩名의 情郎 두어 盜賊질에 利用 미혼 妙령녀의 대담한 범행 本町署에서 檢舉」, 『매일신보』, 1935. 1. 12; 「棄兒犯人은 未婚한 者?」, 『매일신보』, 1937. 3. 14.

21) 朴達成, 「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생활 - 이 글을 미혼남녀에게 주노라, 『신여성』 제2권 제6호, 1924년 9월호.

라는 단체가 또 하나 생기여 「독신구락부」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도전을 개시하고 있다.²²⁾

이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결혼클럽의 여자들은 독신클럽에 들어 있는 여자들이 “인간의 책임을 귀찮게 여기는 비겁한 단체”이며, 그들이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마음이 상한다고 언급한다. 그러자 독신클럽에서는 “우리들은 독신으로 잇는 것을 희망하는 까닭에 독신을 계속하는 것뿐이올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놓고 잇는 것은 아니”며, “구락부의 중요 목적은 자선사업에 활동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고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언론에서는 결혼주의자와 독신주의자를 설정하고 그 둘을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작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의 신문에 뉴스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혼인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 존재감 없이 흩어져 있던 결혼하지 않은(못한) 존재들은 ‘독신클럽’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혼한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대립적 존재로 뚜렷하게 등장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삶이 ‘인간의 책임’, ‘자선사업’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 속에,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분명 두 클럽에 남녀가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대립 각을 세울 때는 결혼 적령기의 ‘처녀’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에 소개된 서구적 근대 가족의 개념은 부부관계와 내조하는 아내의 성 역할과 결합되었다. 이에 「독신생활은 부자연한 일이다. 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하라」²³⁾라는 식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올라왔다. 독신은 단순히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2) 「獨身俱樂部와 結婚俱樂部의 反目」, 『별건곤』 제65호, 1933. 7. 1.

23) 『중외일보』, 1928. 4. 28.

Ⅲ. 불행한 독신자, 노처녀·노총각의 문제

1. 위험한 독신생활의 악폐

독신자 및 독신생활이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들은 독신자를 사회 문제로 다룬다. 1900년대~1945년 사이 독신자의 자살 및 자살시도, 피살 또는 강도피해 등 죽음에 대한 것이 18건 정도 기사화되었다. 그 가운데 독신자가 저지른 범죄와 방화 등 악행에 대한 기사가 17건인데, 그러한 기사는 특히 193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한다.

독신인 상태로 있는 존재는 다른 한편에서 '노처녀'와 '노총각'으로 이야기되었다. 독신과 마찬가지로 노처녀/총각에 대한 신문기사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노총각'이 '노처녀'가 각 51개로 똑같은 비율로 등장한다. 이는 조선 시대에 독남보다는 독녀에 대한 기록이 확연히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과거에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여자가 문제가 되던 시대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남자'도 문제로 여기는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²⁴⁾ 강도를 당하거나, 피살된 경우를 다룬 기사에서 그들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피해자는 독신"²⁵⁾ 또는 "피해자는 가련한 독신청년"²⁶⁾이라는 식으로 단지 피해자가 독신이라는 점이 반드시 거론되었다.

독신인 상태로 살아가던 노총각과 노처녀들에 대한 기사는 탈선,²⁷⁾ 독신

24) 조선시대에 혼인하지 않은 채 나이든 처녀를 혼인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었다. 영조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혼인하지 못한 남자에 대해서도 물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조선시대에 혼인 장려책은 여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20(3), 2004, 10쪽 참조. 이와 비교할 때 20세기 초에 노총각과 노처녀를 똑같이 문제 삼은 것은 흥미롭다.

25) 『동아일보』, 1926. 10. 31.

26) 『매일신보』, 1928. 2. 9.

27) 「노총각의 탈선, 길 가든 부녀를 송림으로 끌고 가 폭행(고원)」, 『동아일보』, 1937.

자의 사기와 악행,²⁸⁾ 사망,²⁹⁾ 살인³⁰⁾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가운데 노총각과 관련해서 강도질, 간통, 살인, 사기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는데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사이에 꾸준히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방화하는 노총각은 앞에서 본 독신중년남의 방화와 함께 자주 등장하였다. 장가 안 들어 준다는 이유로 방화³¹⁾하거나, 사랑에 분풀이 하려고 방화하고 잡힌 노총각³²⁾이 기사화되었다. 독신자가 방화한 사건은 그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독신자는 ‘즐기려고 방화’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중년독신자가 불구경하려고 방화, 동네에 다섯 번이나 방화하고 즐겼다」³³⁾라는 기사 등은 독신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알리는 것이다.

해원연맹회장이 소녀를 성폭행한 문제를 보도할 때도 병독을 감염시켰다고 하면서 그것이 ‘독신생활의 악폐’³⁴⁾라고 이야기되었다. 독신자는 남에게 병을 옮길 수 있으며, 범죄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였다.

또 ‘독신녀’가 간통으로 낳게 된 아이를 죽이고 철창에 갇혔다거나, ‘분만’을 했다던가, ‘독신생활’을 한다고 빙자하고 두 서방을 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다. 단순한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도, 또 각종 범죄가 논의될

11. 16.

- 28) 독신을 빙자하여 부녀를 유린하거나, 농락했다는 기사는 7건이다.
- 29) 단순한 사망 사건에서도 그가 ‘독신’이었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되었다. 독신자 사망 관련 기사는 3건.
- 30) 살인 관련 기사는 3건인데, 뜻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를 죽인 경우가 2건(『매일신보』, 1933. 2. 15; 『조선중앙일보』, 1934. 10. 24.), 가족 3명을 부엌칼로 참살한 독신 50대의 참극은 후쿠오카에서 일어난 일이 보도된 경우(『부산일보』 1934. 5. 18.)이다.
- 31) 「장가 안 디러 준다고 노총각이 방화, 그 어머니의 고소로 판명되어 고흥읍내에 생긴 일(광주)」, 『동아일보』, 1934. 11. 2.
- 32) 『매일신보』, 1934. 5. 30.
- 33) 『동아일보』, 1932. 5. 30.
- 34) 「海員聯盟會長, 소녀를 더럽혀, 병독을 감염시켜, 독신생활의 악폐」 『조선신문』, 1926. 4. 15.

때도 그가 가해자인 피해자인 상관없이 '독신자'라는 것은 특별히 강조되었다. 혼인하지 못한 그들은 사회악이고, 폐단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 거리였다.

독신자들은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자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는 자들로 기사 속에 등장하기도 했다. 독신자들이 중국, 만주 등으로 이주하는 일이 보도된 것이다. 1925년 8월 13일자 『시대일보』에 실린 「중국 가는 여자, 인천에 또 1명, 아무도 없는 독신여자, 중국인의 아이까지 배」라는 기사는 소위 '독신여자'가 중국으로 가는 일이 '또' 있다고 서술한다. 조선 땅을 떠나 만주로 이민 가는 '독신자'에 대한 내용은 1934년과 1935년 『만주일보』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4년의 기사에서는 「독신자의 자위 이민」에 대해 다루면서, 그것이 이어져도 “악영향은 없는지”를 묻고 있다.³⁵⁾ 1935년에는 「독신남녀가 만주로 가는 경우가 작년에 1만 명」이며, 특히 여자 독신녀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보도했다.³⁶⁾ 그들은 언젠가 결혼을 해서 출산하여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하는 존재였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2. 비/정상적인 노처녀 · 노총각들

이러한 독신자들은 노총각, 노처녀라는 존재로 불리며 고독에 몸부림치거나 히스테리, 신경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독신자는 위험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취약한 존재였다. 독신생활 하는 사람의 수명이 짧다던가,³⁷⁾ 「독신부인이 쉬 늙는 까닭, 홀몬이 줄어드는 때문」³⁸⁾ 이라는 등 독신은 병독, 짧은 수명, 호르몬 이상 등 몸의 이상을 일으키는

35) 『만주일보』, 1934. 2. 16.

36) 『만주일보』, 1935. 1. 29.

37) 『동아일보』, 1935. 9. 12.

38) 『매일신보』, 1938. 8. 8.

것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독신자는 변태심리를 가진 존재라고 다루어졌다. 1924년 『조선신문』에도 「독신자가 가진 변태스러운 심리」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다.³⁹⁾ 또 독신자를 변태라고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친 교섭’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독신인 처지’라고 묘사하기도 했다.⁴⁰⁾

독신 상태로 있는 자들이 자살했다는 기사도 종종 등장했다. 독신생활을 비판하여 자살했다는 기사는 8건이고, ‘노처녀’의 자살은 10건, ‘노총각’은 14건이 보인다. 음독 또는 투신의 방식으로 그들은 세상을 등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자살한 경우도 있지만, 그저 막연히 독신생활을 비판하여 죽었다는 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다.⁴¹⁾ 「비내리는 인천, 항구에 우는 미인. 고단한 독신생활 비판, 투신자살하려다 미수」⁴²⁾와 같은 기사는 독신생활의 고단함과 죽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던 상황을 엿보게 해준다. 이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들이 독신자, 노총각, 노처녀라는 것은 특별히 강조되었다. 1935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해주읍 서영정 김성철의 딸 김용녀(23)란 노처녀가 지난 14일 해주읍 상정수원지에서 자살을 하였다한다.”⁴³⁾고 하여, 자살한 23세의 김용녀를 굳이 ‘노처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다리 병을 비판하여 우물에 몸을 던진 노처녀」와 같은 제목의 기사는 장애인 처녀의 자살을 다루면서, 특히 신체의 장애를 강조하고 있다. “한쪽 다리가 병신이 되어 처녀로 늙게 된 것을 10년간 비판하다 자살”했다는

39) 『朝鮮新聞』, 1924. 9. 14.

40) 「독신인 처지에 수양(修養)은 적고 처녀 십팔세 사춘기를 당한 생도와 지나친 교섭」, 『매일신보』, 1935. 10. 30.

41) 「독신생활 비판하고 철도 자살한 청년」, 『조선중앙일보』, 1934. 11. 27; 「소부(少婦)의 음독, 독신을 비판」, 『매일신보』, 1935. 1. 22.

42) 『조선중앙일보』, 1936. 7. 4.

43) 「老處女가自殺, 西榮町 金龍女(海州)」, 『동아일보』, 1935. 5. 17.

것이다.⁴⁴⁾ 1930년의 다음 글은 P·Y·S라는 필명의 필자가 “노처녀 삼십년사”라는 소제목으로 작성한 내용 중 일부인데, 나이 스물일곱이면 올드미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불구자’가 되는 듯이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탄식을 담고 있다.

처녀가 나히 스물일곱이나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안었다면 신식문자로 올드미스라하여 무슨 끔찍스런 불구자나 되는 듯이 7분의 조롱과 3분의 쓰다 남은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는 만홀 것이다. 『여복 못생겼기에 그 나히되도록 다러가는 사람이 업슬나고! 몸에 시집 못갈 무슨 탈이 있는게지.』⁴⁵⁾

불구자와 독신이 연계되고, 독신은 무슨 탈이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선 속에, 결혼 못한 노처녀는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1931년 잡지 『별건곤』에서는 총각당본부에서 주최 ‘노처녀전람회’라는 제목으로 소위 ‘노처녀’인 그녀들을 관찰하고 회화화하는 글이 실리면서,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다.⁴⁶⁾ 그 속에는 그저 적당한 남편을 얻지 못한 사정, 체격과 성품이 남성적인 사정, 친정 식구가 많아서 부담인 사정, 운이 안 돌아 연대가 안 맞아 혼인 못한 사정, 신경병을 가진 사정, 귀신이 붙었다는 미신 때문에 혼인 못한 사정 등 갖가지 사정을 가진 노처녀들이 나열되어 있다.

노처녀는 ‘전람회’의 대상이 되는 구경거리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지극히 정상이라서 독신일 이유가 없다

44) 「다리病悲觀 投井한 老處女」, 『동아일보』, 1935. 9. 4.

45)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獨身生活을 하게 하는가? 고독한 사람들의 告白」, 『별건곤』 제28호, 1930. 5. 1.

46) 「主催 總角黨本部 老處女展覽會 後援 不婚同盟·獨身同友會」, 『별건곤』 제43호, 1931. 9. 1.

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독신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되기도 했다. 결혼 못한 이유는 다양했고, 그녀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었다. 어쨌든 ‘혼인 못한 그녀들’은 혼인을 못한 문제를 가진 ‘문제 있는 존재’로 논의되었다.

1929년 『별건곤』의 「총각심정, 안타까운 노총각의 고백」이라는 기사에서 혼인하지 못한 노총각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정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는 “나는 금년 설혼 두 살로 아죽도 총각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옛날 같으면 고자나 생강쟁이 총각이 아니고는 이때까지 홀아비로 지낼 리가 만무하다고 부인을 하거나 조롱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늙은 총각이다”라고 언급한다. 32세의 총각은 엄청나게 늙은 총각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에 다음과 같은 긴 탄식을 늘어놓는다.

나는 성의 불구자도 아니요. 눈썹이 엷거나 코가 빳드러진 것도 아니고 다리 붙어진 병신도 아니고 그러타고 생강장사 떡거머리도 아니다. (……) 왜 그랬는지는 모른 나는 하여간 쓸쓸한 홀몸으로 오늘까지에 여관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으로 나는 생활의 쫓기거나 다른 부자유를 별반 늦겨본 일은 업스나 오죽 그림고 안타까운 마음이 쏠이는 곳은 여성뿐이다. (……)⁴⁷⁾

여기서 성 불구자, 눈썹이 없거나 코가 비뚤어진 것, 다리 부러진 병신, 생강장사 떡거머리 등이 등장한다. 글쓴이는 자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총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을 통해 소위 노총각이라는 것은 그러한 결핍을 가진 존재로 설정된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결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부자의 반대쪽에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결혼하지 못한 그들의 불행을

47) 「總角心情, 안타까운 心境 老總角의 告白」, 『별건곤』 제18호, 1929. 1. 1.

과장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 추진된 것이다. '독신'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을 통해 '결혼'을 해서 정상인이 되도록 추동했다. 그런데, '독신'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되면 될수록, 한번 그 때를 놓쳐서 '독신'으로 보이게 된 존재들은 오히려 더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문제가 많고 위험한 독신자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1940년대에는 '기념사업에 독신자를 배제'했다는 기사⁴⁸⁾가 나오고, 1941년에는 「독신자는 국책 위반-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적령기를 놓치지 말자」라는 기사⁴⁹⁾가 게재되어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책'을 '위반'하는 존재로 다룬 것을 볼 수 있다. 위험하고 취약한 처지의 비정상적인 독신자, 노총각/노처녀들은 권리를 제약당해 마땅한 집단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IV. 독신주의자의 등장과 독신 아파트: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선망

1. 결혼실패자와 독신주의자 사이

20세기 초반 조선에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연애를 통한 결혼, 애정에 기반한 부부 가족, 근대적 공사구분에 따른 부부 역할의 수행 등을 골자로 한다. 부부의 애정으로 만들어진 소가정은 근대적 남녀가 추구해야 할 지상의 과제였다. 다음 글은 그러한 자유교제를 통한 연애결혼이 강조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남녀 교제를 자유롭게 하는 일은 다만 결혼 상대의 선택에 필요한 것뿐

48) 「오늘의 화제: 기념사업에 독신자를 배제」, 『부산일보』, 1940. 2. 29.

49) 『매일신보』, 1941. 10. 22.

아니라 새시대에 처하는 새인물로서의 진실한 새생명을 활기 있게 키우는 데 크게 값있는 일이 되는 것이외다. (……) 이성 간의 자유 교제! 그렇소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 결혼은 자유 교제가 있는 곳에서 뿐 바랄 수 있는 것이외다.⁵⁰⁾

자유교제와 자유결혼, 그것은 새시대의 새인물로 진실한 새생명을 키우는 값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심지어 “연애 없는 결혼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무의미케 할뿐 아니라 민족의 발달 인류의 진화 상에 큰 장애를 주는 것”이며, “연애 없는 결혼생활을 하기 때문에 (……) 자기들의 개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그와 함께 가정의 친목을 얻지 못함”⁵¹⁾이라고 논의되었다. 연애에 기반한 결혼은 진보의 상징이고, 인간 발달과 가정 친목의 기초라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근대적 결혼제도가 만들어지는 법적인 체계의 변화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1923년 7월 1일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조선에는 ‘법률혼인주의’가 선언되고 근대적 결혼이 제도화되었다.⁵²⁾ 이에 1명의 부인만이 인정되고, 그것을 결혼 당사자 개인이, 재판소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개인과 사법’이 연결되면서 법률을 기반으로 ‘부부 중심의 소가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신고 기한을 어긴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조선 사람의 ‘집’이란 것과 신분의 실제 관계가 명백하게 또 완전하게 확보”⁵³⁾되었다는 총독부의 공표에 걸맞게 <조선호적령>은 일상의 관계 속에 스미며 부부 중심의 개별 소가족의

50) 편집인(編輯人), 「未婚의 젊은 男女들에게 -당신들은 이럿케 配偶를 골르라-, 『신여성』 제2권 제5호, 1924년 5월호.

51) 金璟載, 「결혼문제에 대한 조선 청년의 변민」, 『신여성』 17호, 1925년 6월호.

52) 「改正된 戶籍, 鐵道, 電話, 總히 今 7월 1일부터 시행, 新舊 戶籍의 차이점, 『매일신보』, 1923. 7. 1.

53) 위의 자료.

구성을 촉발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연애를 통해 결합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소가정은 종법의 원리에 따른 <호적법> 체제 안에 배치된 것으로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한 것이었다. 1915년 민적법 개정을 전후로 하여 조선총독부는 종법의 원리에 따라 기재하는 방식의 <호적법>으로 개정하고 1916년에는 아버지와 장남이 별거해 따로 편제된 민적은 모두 말소하여 새로 합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부계직계'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와 장남이 하나의 호 안에서 호주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조선총독부에서 관철시킨 조치였다.⁵⁴⁾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연애결혼은 서구로부터 도입된 근대적 가족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기이한 '종법적 호주제' 체제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반드시 진정한 사랑이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해지면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결혼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장남이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는 방식의 종법적 호주제 체계는 강력한 호주의 권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이루는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단란한 소가정은 처음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었다.

식민지의 경제적 조건은 부부가 부모세대 및 다른 가족과 독립하여 소위 '스위트 홈'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에 이상적 가정을 이루려면 '이상적 남편/아내', '이상적 주택', '이상적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었다.⁵⁵⁾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젊은 군상들에

54) 이 내용은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권'에 대한 지식의 착종: 식민주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비판적 논의」, 『동북아문화연구』 52, 2017, 89쪽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55) 이상적 가정에는 이상적으로 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로, 이상적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자로서는 이상적 남편이 있어야 될 것은 물론) 둘째로는, 이상적 주택이 있어야 되겠다. 셋째로는, 이상적 직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는 이상적 가정이 못 될 것이다. (……) 박달성(朴達成), 「내가 생각하

게 그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꿈일 뿐이었다.⁵⁶⁾

식민지의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기엔 대체로 너무 가난했다. 1937년에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결혼을 하기 위하여 도적질까지 한 노처녀”⁵⁷⁾에 대한 기사에서, 남의 집 하녀인 이영자(가명)가 결혼비 장만을 위해 “현금 삼백여 원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이 절대 필요한대 쌍방이 모다 빈한한지라 이양은 점점 닥쳐 오는 결혼식날 나제 대하여 히열과 공포를 품고 고민하다하다 못하여 마침내 23일 밤에는 결혼비를 작만키위하여 주인의 호주머니에서 전기금을 절취하려든 것이라 한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물질’의 빈한함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이영자와 김복진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독신자에 대한 통계에 대한 기사에서는 1922년에 독신자는 경성부에서 3천명이라고 되어 있고,⁵⁸⁾ 1933년도에는 불경기 속에 독신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⁵⁹⁾ 1938년의 기사에서는 경성부 사람들의 내면 상을 들여다본다는 제목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독신자가 많다」라고 서술된 것을 볼 수 있다.⁶⁰⁾

가련한 노총각이 ‘거짓 중매’에 속은 이야기,⁶¹⁾ 과부를 납치한 노총각에

는 가정家庭과 생활生活- 이 글을 미혼남녀에게 주노라, 『신여성』 제2권 제6호, 1924년 9월호.

56) 정지영, 앞의 논문, 2006, 68~71쪽.

57) 「結婚費難 老處女の 脫線 주인돈 삼백 원을 훔치다 잡혀 結婚式 三日 앞두고, 『동아일보』, 1937. 8. 26.

58) 『매일신보』, 1922. 3. 28.

59) 『조선매일신문』, 1933. 9. 4.

60) 『매일신보』, 1938. 3. 6. 실제 인구에서 독신자가 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경성이 도시화되면서 독신자의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이 시기에 처음으로 독신자에 대한 통계가 특별히 도출되고 강조되면서 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른 ‘위기 담론’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61) 경남 산청군의 조영철이 27세의 조해룡에게 처녀를 소개해준다고 속여서, 소개비로 현금 25원과 버 10말을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노총각의 신흠연에 신부는 피신하

대한 기사⁶²⁾들은 결혼에 대한 강박만큼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독신자들은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지만, 결혼을 하기도 어려웠고, 하더라도 실패담의 주인공이 되기 일쑤였다.

1927년의 『별건곤』에 실린 「결혼실패가열전」이라는 글은 결혼과 독신생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듯한 논의를 담고 있다.

잘사나, 못 사나, 잘났스나, 못났스나, 인생의 일생에는 반드시 결혼 시대가 한번씩 있다. 사랑의 폐허를 일커러 결혼이라고 부른다는 사람도 있다. 결혼은 백복의 기초이라는 분도 있다. 결혼과 인생이란 머리쌀 이쁜 문제를 떠나서도 어지간히 우리는 절실한 흥미와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잘 한 사람, 잘 못한 사람! 잘 한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잘 못된 사람 잘 못했다 하얏더니 그럭저럭 구수하게 된 사람 그야말로 반도의 모든 사조가 과도기에 있는 그만큼 별별가지 이약이 거리도 특별이 만흔 것이다.⁶³⁾

이 글을 쓴 자는 자신의 필명을 ‘노총각’이라고 쓰고 있다. 노총각인 필자는 결혼이라는 문제가 과도기에 있는 것이며 머리가 아픈 문제이며, 하지만 절실한 흥미와 동경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다양한 사연으로 연애하여 결혼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된 사연들이 나온다. 그 글에서 “자유연애의 한 성공자”라는 것이 가장 큰 칭송이다. 하지만, 그 성공자는 드물어서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는 “너무 실패담만 많았다”며, 결혼 성공자를 몇 명 거론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이 “귀밑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는 최대 원인은 얼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한다.

고 신랑은 격분해서 단발, 신부 오기 기다리던 연석은 호지부지, 거짓 중매로 생긴 희황극, 『동아일보』, 1926. 1. 30.

62) 「포대 씨위 과부남거 노총각의 만행 나주군하의 괴기사」, 『동아일보』, 1938. 9. 24.

63) 「結婚失敗家列傳」, 『별건곤』 제5호, 1927. 3. 1.

이렇듯 실패가 많은 결혼이기에 한 노총각은 쓸쓸한 생활을 한탄하면서도 결혼 생활의 여러가지 고통을 생각할 때 “문득 친구들의 골머리 알는 결혼생활 가뉘생활의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해 볼 때에는 깜짝 놀나 결혼하고 십든 생각이 씨도 업시 다 다라나 바리고”⁶⁴⁾라고 고백한다. 그는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혼자 사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글에서도 “결혼이 사람으로서의 반듯이 직어야 할 범규요, 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한평생을 이대로 늙어바리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다. 결혼을 해야 생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통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식민지기의 부부 중심의 소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 자체의 내부 모순으로 교착상태에 있을수록 독신과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은 음독, 투신 등 자살 사건과 함께 묶여서 논의되면서 부정적인 존재, 사회적 문제라는 의미와 결합되었다. 하지만 독신자에 대한 상담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는 “비참한 결혼 생활보다 독신이 낫다”는 말로 마무리되고, 한편에서는 미켈란젤로, 아담 스미스 등 독신 위인을 소개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⁶⁵⁾ 독신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서구’, ‘해외’의 소식으로 전해진 새로운 근대의 생활양식이기도 했다. 그것은 서구로부터 온 ‘근대’적인 양상과 근대적 자유를 획득한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혼한 부부자의 ‘타자’였지만, 한편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길을 택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2. 샬러리맨의 ‘독신자 합숙소’와 스마트한 아파트

독신으로 사는 것이 비관적인 것으로 논의되는 속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64) 「總角心情, 안타가운 心境 老總角의 告白」, 『별건곤』 제18호, 1929. 1. 1.

65) 「獨身偉人」, 『별건곤』 제69호, 1934. 1. 1.

독신자 직원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가 또는 사업체 차원에서 합숙소를 설치하여 독신인 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숙소는 '독신'의 인력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국가적 필요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독신'을 문제 있는 상태로 논의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 활용을 위해 '독신자'를 선발하고 독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독신인 그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근대적 부부가정을 안정적으로 구성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단란한 소가정, '스위트홈'을 꾸리도록 추동했지만,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독신'으로 남은 사람들은 유용한 자원이었다.

이에 철도국 직원, 경관(警官), 회사 및 공장의 독신 직원 등을 위한 '합숙소'가 건설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독신과 관련한 기사 가운데 '합숙소'를 지은 것에 대한 기사는 16건으로 독신제와 관련한 기사 다음으로 많다. 1922년에 「합숙소 신계획, 경성부에서 독신자들을 위해 연구 중」⁶⁶⁾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1922년에는 경성을 시작으로 합숙소 설치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철도국 직원의 독신자합숙증설」⁶⁷⁾, 「철도국 각 지방에 독신관사신축」⁶⁸⁾ 등의 기사는 1939년의 것으로 전쟁기에 합숙소가 활발히 증설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이미 그 이전에 철도국 직원을 위한 독신자 합숙소가 여럿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1931년에 「독신경관의 합숙소를 설치, 비상소집에 편하도록 평양서가 계획 중」⁶⁹⁾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1933년에는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경관의 거주 제한. 독신경관의 합숙소도 건축, 평양서 실현에 노력」⁷⁰⁾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합숙소는 경관에

66) 『동아일보』, 1922. 2. 21.

67) 『매일신보』, 1939. 3. 22.

68) 『동아일보』, 1939. 11. 9.

69) 『매일신보』, 1931. 8. 27.

70) 『매일신보』, 1933. 7. 7.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그들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주제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었다. 1939년에는 「독신자 경관단 선발, 250명을 상주」⁷¹⁾하게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경관 등 선발에 독신자를 우선시하고, 그들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숙소를 설치하는 등 특정 직업에 대해 ‘독신’인 그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매일신보』의 「독신생활론」이라는 기사⁷²⁾에서, “사람은 ‘일부일부(一夫一婦)’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사람이 맡은 바 중대한 천직을 다하기 위해 독신주의를 취하는 사람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천직을 완성하기 위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찬성”이라고 논의된 것을 볼 수 있다. ‘독신’인 상태로 있는 그들은 국가에서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었다. 식민지에서 ‘결혼’은 권장되지만, 현실에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을 채용하여 가정과 같은 것에 묶이지 않은 그들을 상주하도록 하며 동원을 용이하게 하며, 활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독신’이라는 범주는 단순히 그들을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다수의 개별적인 요소가 갖는 특별한 효용을 증대시키고,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⁷³⁾ 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능력을 차별화하고 업무에 따른 조정 등에 ‘독신’이라는 범주는 유익한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했다.

이러한 합숙소는 그들의 업무조건이나 실정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샐러리맨의 합숙소’라는 이미지 속에 새로운 근대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독신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서울과 부산과 목포 등지에 세워졌다는 기사들이 등장했다. 1930년대에 「보수정 강가에 태어난 스마트한 ‘청풍장’: 갖가지 설비로 더할 나위 없는 독신과 샐러리맨을 위한 아파트」⁷⁴⁾를 홍보하는 기사가 나오고, ‘훈련원 터에 3층으

71) 『매일신보』, 1939. 6. 17.

72) 「독신생활론」, 『매일신보』, 1920. 3. 4.

73) 푸코, 앞의 책, 321쪽.

74) 『부산일보』, 1934. 10. 23.

로 모던 독신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기사,⁷⁵⁾ 「독신자에게 낭보: 목포에 아파트 출현」,⁷⁶⁾ 「체신 종업원」을 위한 시설인 독신 아파트에서 여자에게는 각종 강습회를 연다는 내용의 기사,⁷⁷⁾ 독신녀를 위한 「여자희망관」이 건설되었다는 기사⁷⁸⁾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스마트, 모던, 희망, 낭보라는 말들로 화려하게 포장되었다. 어느새 독신은 「모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신은 이미 눈에 차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방져서 시집을 안 가」는 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던 상황이었다. 「요새 계집애들이란 건방져서를 그래 시집을 안간다는구료. 이런 딱한 일을 뵈소. 꼴에 안고수비(眼高手卑)해서 여간 따위는 제 발고락새 튀는만치도 안녁인단 말야. 돈만코 인물 잘나고 똑똑하고 서양유학이나 갔다온 청년신사가 맞춤 잇섯스면 조호련만 어디 그런 사람이 쉽소. 우리 조선에⁷⁹⁾」라는 것이 당시 「올드미쓰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 아니 조롱이요, 마음에 업는 탄식」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제 「올드미쓰」라는 이름의 그들은 눈만 높고 재주는 별로 없이 시집 안 가는 건방진 존재로 이야기된다.

한편 건방져서, 여간한 남자는 발가락의 티눈으로도 여기지 않는다고 독신 여성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운 「무산정당의 여류투사」와 「규수문사」들이 근로층에 속하는 부녀들이 독신여자로서 합숙소에 모여 산다는 동경(東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모여 사는 풍경이 선망어린 시선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 속에서 합숙소는 「아빠-트」라는 서양 도시에, 일본 도시에, 러시아의 도시에서 근로층의 부녀들이 모여 사는 공간

75) 그 내용에는 난방장치와 양복장까지 설비되어 있다는 설명이 붙고 요금은 대중적 염가라는 말도 붙어 있다. 『매일신보』, 1937. 1. 21.

76) 『부산일보』, 1940. 3. 10.

77) 『부산일보』, 1938. 3. 17.

78) 『매일신보』, 1941. 6. 28.

79) 「〈노처녀 삼십년사〉 무엇이 그들로 하야곰 獨身生活을 하게 하는가?, 고독한 사람들의 告白」, 『별건곤』 제28호, 1930. 5. 1.

으로 논의되고 있다.

요지간 동경(東京, 도쿄)서 나온 사람의 이약이를 들르면 일본에는 독신여자들이 모아사는 합숙소가 엇더케 만흔지 모른다고 한다. 청산(靑山, 아오야마)에도, 삼곡(澁谷, 시부야)에도. 그래서 은행회사의 여사무원으로부터, 여교원, 여급, 또 무산정당의 여류투사와 규수문사들까지 모든 근로층에 속하는 부녀들이 모다 크다라케 3,4층으로 지은 「아빠-트」속에 시름 업는 안주의 터를 잡고서 마음노코 제 직업에 힘쓴다고 한다.⁸⁰⁾

동경에는 독신여자들이 모여사는 합숙소가 많고, 그 합숙소는 3, 4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속에 있어서 마음 놓고 제 직업에 힘쓴다는 것이다.

「아빠-트」의 조직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개 방이 백여 개 되는 곳에는 그 안에 공동식사장, 공동목욕장, 공동세탁장이 있고 도서실이나 신문열람실은 의례 있고 또 좀더 완비한 곳이면 「육아홈」까지 두어서 근로부인을 위하여 종일 그 어린 아해들을 마터 길너준다고 한다. 크면 클수록 인류공동생활의 종합형으로 완비하여 질 것이나 그러치안코 방도 수십밖에 아니되는 합숙소에서 서로 오락실쯤은 둔다고 한다. 그래서 식사까지 함께 하는 곳도 있고 그러치 안코 방만 세를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아빠-트」의 시설은 생활이 복잡하고 문명이 고도화할수록 발전된다. 아메리카 큰 도시마다 공기 좃코 물맛 조흔 교외지에 엇더케나 만흔 공동주택이 잇스며 더구나 로서아에라 (……)⁸¹⁾

근로층의 독신여자들과 아이를 둔 근로부인까지 모여 사는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첨단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발전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큰 도시마다 많은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이다.

80) 草土, 「京城 獨身女性 合宿所風景」, 『삼천리』 제13호, 1931. 3. 1.

81) 위의 자료.

이러한 해외의 큰 도시의 이야기뿐 아니라 경성의 종로 통에 있는 「아빠드」에 대한 설명도 등장한다. 경성 독신생활 합숙소 풍경에 대한 글은 궁금증으로 가득하다.

더구나 생활의 방식을 엿더케 하고들 지내는지 몰랐다. 즉 이 집안사는 다섯 분이면 다섯분이 모다 직업선상에서 그날그날 소득된 것을 함께 합하여 그것을 균일하게 분배하여 쌀사고 나무시는지. 이 여러 가지는 물어보아도 확실한 대답이 업섯다. 아직 시설한지 얼마되지 안어서 규율과 방식이 채 짜이여지지 안는듯하다. 그럼으로 이 「아빠드」는 내일에 그 윤곽이 선명하여 질일이지 오늘은 아직 모른다고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신시대생활의 명쾌한 축수인 「아빠드」가 독특한 조선의 생활방식우에 지금 군림하려한다고 봄이 올치 안을가 (……) 다만 나의 제육감으로 엿은 이 집의 아웃트, 라인은 이러하리라 하였다. 아직은 세를 주고 우씨나 심씨나 기타 여러분이 모다 한방씩 어더들고 게신 듯. 그래서 밥짓는 것도 제각기 옷 빼는 것도 제각기 쌀사고 나무사오는 것도 제각기 제돈으로, 그리고 독신부인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나 결국 우봉운씨(禹鳳雲氏) 이하 독신여성이 대부분이고 또 직업여성만 모여살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나, 자연히 여교원, 여사무원, 사회운동선상의 여류투사들이 모여 살게 되엇슴이라고. 그러치만 아직 태생기에 잇다하여도 근대식 「아빠드」의 형태를 꾸며가고 잇는 것만은 사실이니 조선서는 경이적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업다.⁸²⁾

종로통의 아파트는 아직 시설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윤곽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독신여성과 직업여성이 주로 사는 곳이다. 독신은 샐러리맨, 여교원, 여사무원, 사회운동선상의 여류투사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새생활의 첨단이며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존재”

82) 위의 자료.

이다. 새로운 삶의 형태로 호기심과 기대, 선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식민지 조선에 한편에서는 너무 가난하여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하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엘리트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독신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그려지며, 근대의 새로운 욕망을 추동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근대생활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독신자 아파트를 청량하고 스마트한 공간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 ‘모던’, ‘셀러리맨’, ‘스마트’라는 키워드, 그리고 ‘독신’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함께 등장한 해외의 유명 독신자에 대한 선망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생활의 한 양태로 등장하고 있었다.

V. 나가며

1920년대~30년대 신문과 잡지의 기사 속에는 연애결혼에 대한 칭송과 함께 ‘독신자’의 고독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독신자’라는 범주로 묶고 그들에게 징벌적인 ‘독신제’를 부과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한편 사기와 범죄, 자살과 음란 등 사회의 불안요소와 연결하여 다루는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불쌍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자신도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핍된 존재인 독신자들이 온전해지려면 ‘부부자’가 되어야 했다. 독신자에 대한 담론은 결혼하도록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다.

‘독신’이라는 새로운 범주 속에 사람들을 묶고 그들의 특징을 설명한 방식은 20세기 초, 근대적 결혼과 부부 관계,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 가정의 모델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특정한 구도 속에 배치하고자 한 기획을 보여준다. 그 기획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신문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국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국책은 완성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며, '독신'을 둘러싼 담론이 기획자의 의도대로 전개된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에서 경관, 철도원 등의 직업에 독신자만을 선발하고 그들을 위한 합숙소를 만들고 홍보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독신 샐러리맨, 근로자, 봉급생활자들이 꾸리는 아파트의 독신생활은 새로운 근대적 라이프 스타일로 부각되었다. 직업을 가진 자들은 실질적인 노동 조건과 무관하게 서구의 유명한 독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던'한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었다.

근대화된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던, 스마트, 희망의 삶의 양식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내는 장치이기도 했다. 근대적 가정을 꾸리는 것은 문명이고, 독신은 문명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강조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혼자 사는 삶은 또 다른 '새로운 근대'의 표식으로 논의되었다. 독신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여기며, 선망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식민지에서 근대적 '결혼'과 '소가정'을 이루는 일이 종법적 호주제 체제 속에 배치된 모순적인 것이었듯이, 독신에 대한 담론 또한 복잡한 층위 속에 모순적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독신'과 '독신주의'라는 새로운 범주가 설정된 과정, '독신자'라는 범주로 인구를 파악하고 묶어내는 방식은 근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을 통한 규범적 관계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근대적 결혼으로 이루어진 소가정의 이상이 제시된 가운데 현실에서 벌어진 다양한 층위에서 만들어진 구멍들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국민신보』
『국민보』
『남선일보』
『동아일보』
『만주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부인』
『시대일보』
『신여성』
『조선매일신문』
『조선신문』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황성신문』
『별건곤』
『삼천리』

- 김미란, 「5.4 개성해방 시기의 ‘독신’ 담론」, 『중국소설논총』 45, 2015.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 소현숙, 『이혼 법정에서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 역사비평사, 2017.
- 양지혜, 「전시체제기 식민지 여성의 공적 공간 진출과 민족, 계층, 젠더」, 『도시연구』 20, 2018.
-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2008.

- 이주라, 「한국 근대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처녀라는 주체」, 『어문논집』 79, 2017.
- 이주영, 「결혼이라는 불온한 제도 : 일제말기 국민연극에 나타난 결혼」, 『우리문학연구』 47, 2015.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20(3), 2004.
- _____,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4), 2006.
- _____, 「조선시대 ‘독녀(獨女)’의 범주: ‘온전치 못한’ 여자의 위치」, 『한국여성학』 30(3), 2016.
- _____, 「조선시대의 외람된 여자 ‘독녀’: 위반과 교섭의 흔적들」, 『페미니즘연구』 16(2), 2016.
- _____, 「조선시대 ‘가장권’에 대한 지식의 착종: 식민주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비판적 논의」, 『동북아문화연구』 52, 2017.
- _____, 「‘가정음악’ 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가정 형편: 피아노 배운 여자의 역설」, 17(2), 2017.
- 천성림, 「모성의 거부: 20세기 초 중국의 “독신여성” 문제」, 『중국현대사연구』 24, 2004.
-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빈처』, 삼중당, 2004.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1994.
- 엘리자베스 에보트, 이희재 역, 『독신의 탄생: 금지된 성적 욕망에서 도발적 자유 선언까지 독신의 진화사』, 해냄, 2006.
- 장 클로드 볼로뉴, 권지현 역, 『독신의 수난사』, 이마고, 2006.
- Kinneret Lahad, “Singlehood, Waiting, and the Sociology of Time,” *Sociological Forum*, Vol. 27, No. 1, 2012.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THE CATEGORY OF “SINGLEHOOD” AND
ITS CONTRADICTIONARY OPERATION IN THE COLONIAL CHOSŎN
: BETWEEN A FAILURE AND A CHOICE

JUNG JIYOUNG (JUNG, JI YOUNG)

In July 1, 1923, the “principle of legal marriage” was declared in Chosŏ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centered on the married couple was thus created. At the same time, the discourse which idealized “small families” formed by love marriage was being constructed. In contrast to the ideal of a “sweet home,” the “unmarried” status was discussed as unstable and abnormal. However, “small family” was contradictory to the “patriline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secure the financial conditions to have the modern “sweet home” in the colonized Chosŏn. A new category, “singlehood,” appeared in this context where neither love nor marriage was easy to achiev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in which the discourse on “singlehood” was constructed, focusing on the ways in which the incidents related to “singlehood,” “single persons,” “old maids,” and “old bachelors” were report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unmarried people were made visible in relation to short life expectancy, frequent illnesses, depression, and suicides. They were constructed as the Other of the “married.” On the other hand, singlehood and single life were envied as the new modern

lifestyle. While the category of “singlehood” was established as the Other of marriage, it was also a new option which made cracks to the marriage system without being caught i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 of patrilineal small family.”

Key Words : Discourse on Singlehood, Monogamy, Old Maid, Old Bachelor, Married Couple, Small Family, Love, Marriage, Single Apartment